



울산시간호사회 울산역 캠페인



강원도간호사회 춘천역 캠페인



충남간호사회 천안아산역 캠페인



전북간호사회 전주역 캠페인



인천시간호사회 주안역 캠페인



광주시간호사회 광주송정역 캠페인



충북간호사회 오송역 캠페인



전남간호사회 목포종합버스터미널 캠페인

### 시도간호사회 '1인 1마스크' 캠페인

대한간호협회 전국 시도간호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1인 1마스크 쓰기' 캠페인 릴레이를 펼쳤다.

시도간호사회에서는 시민들에게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물과 마스크를 나눠주며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울산시간호사회(회장 이경리)가 2월 11일 울산역에서, 강원도간호사회(회장 장희정)가 2월 12일 춘천역에서, 충남간호사회(회장 임미림)가 2월 12일 천안아산역에서, 전북간호사회(회장 안옥희)가 2월 12일 전주역에서, 인천시간호사회(회장 장성숙)가 2월 14일 주안역에서, 광주시간호사회(회장 이숙자)가 2월 14일 광주송정역에서, 충북간호사회(회

장 박미숙)가 2월 17일 오송역에서, 전남간호사회(회장 장영숙)가 2월 18일 목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이에 앞서 대한간호협회 중앙회, 서울시간호사회, 부산시간호사회, 대전시간호사회, 경남간호사회, 경기도간호사회, 대구시간호사회와 경북간호사회가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간호사신문 2월 13일자 보도)

대한간호협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국적인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했다"고 말했다.

이진숙·최유주 기자

### 일하다 코로나19 감염되면 '산재보상'

#### 간호사 등 의료인 업무 중 감염됐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COVID-19) 산재 신청에 대한 산재 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이 번에 마련한 방안이 따라 신속한 요양·보상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업무처리방안에 따르면 보건 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경우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고,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

비보건 의료 종사자의 경우 공황·향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돼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 단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에 인정 가능하다.

공단은 예를 들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 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단은 또한 산재환자가 요양 중인 병원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해 격리 조치된 경우 격리기간 만큼 산재요양기간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 지원이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한글 명칭 '코로나19' ... 영어 명칭 'COVID-19'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코로나19(일구)'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정식 명칭을 'COVID-19(씨오브이아이디-일구)'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WHO는 중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이름을 'COVID-19'로 정했다고 2월 11일 밝혔다. 'CO'는 코로나(corona), 'VI'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 '19'는 2019년도를 의미한다.

이후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라는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해 명명하기로 했다. 2월 12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분부장은 "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이름을 COVID-19(씨오브이아이디-일구)로 정했다"면서 "영어식 이름이 낯설어서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을 수용해 정부 차원에서는 '코로나19(일구)'라는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해 명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부분부장은 WHO는 질병의 이름이 부정확해지거나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리적 위치, 동물, 개인 또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하지 않고 △발음이 용이하면서 동시에 △질병과 관련이 있는 이름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앞으로 정부가 질병 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도 이 점을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뇌·뇌혈관 MRI 보험급여 기준 강화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오남용을 줄이고 필수수요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

△보험기준 개선 필요성=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여부 등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약 1년간 급여 청구현황을 관리·감독(모니터링)했다.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MRI 검사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증가하고, 신경학적 검사 등 충분한 사전검사 없이 MRI 검사가 이뤄지는 등 의료과잉의 우려가 있어 보험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험기준 개선 방향을 보고했으며,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뇌·뇌혈관 MRI 보험기준을 개선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한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

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 뇌종양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외의 두통·어지럼은 신경학적 검사 일곱 가지를 모두 실시하고 담당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해 MRI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 뇌질환을 강력히 의심할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또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시에 주로 증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낮춰 적용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2월 25일까지 진행했으며, 고시안이 확정되면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험기준 개선과 함께 3월부터 다촬영기관과 이상청구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거나 이상 청구 경향을 보이는 의료기관은 선별·집중 모니터링해 해당 의료기관에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한다.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진숙 기자 jslee@

### 만3세 아동 소제·안전 전수조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019년 최초로 실시한 '만3세 아동(2015년생) 소제·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발표됐으며,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실시했다. 전수조사에서 확인한 아동은 총 2만9061명이었으며, 이 중 185명의 아동에게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또한 전수조사 과정 중 확대 의심정황이 발견돼 신고된 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확대 피해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했다. 그 결과 3명의 사례는 확대(모두 방임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를 통해 아동의 소제와 안전을 점검한 아동은 총 23명이었다. 경찰은 이 중 22명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1명은 확대가 의심돼 그 피해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해 매년 만3세 소제·안전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10~12월에는 2016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유주 기자 yjchoi@

### 부산시간호사회 간호대학(과)장 간담회

부산시간호사회(회장 황지원)는 간호대학(과)장 간담회를 2월 12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부산지역 소재 15개 간호대학(과)에서 참석했다.

황지원 회장이 간호계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부산시간호사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간호대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세계 간호사의 해를 맞아 대한간호협회가 개발한 엠블럼을 간호대학 홍보물 제작 시 적극 활용키로 했다.

2020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간호사의 해이며,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



년인 해이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안내문 및 자료를 공유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진숙 기자 jslee@



### 경기도 부천시간호사회

#### 김상희 국회의원과의 간호정책 추진 협약

경기도간호사회 산하 부천시간호사회(회장 백정희)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간호정책 간담회 및 협약식을 2월 17일 가졌다.

김인자 경기도간호사회장, 백정희 부천시간호사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백정희 부천시간호사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간호 현안과제를 제안하며 이를 위해 선행할 과제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 김상희 국회의원과 부천시간호사회는 '간호정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간호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연대를 다짐했다.

'간호정책 추진 협약서'에는 간호·조산법 제정, 보건복지부 내 정규직제 전환추진부서 설치, 간호사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최유주 기자 yjchoi@

### 산재보험 의료기관

#### 서비스 품질 향상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재활의료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82.6점으로 전년 71.5점보다 11.1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우수기관으로는 총 15곳이 선정됐다. 재활인증병원 최우수기관은 금강아산병원, 삼성강원병원, 인천사랑병원, 명지병원, 목포기독병원 등 5곳이다.

일반병원 최우수기관은 부산고려병원, 좋은강안병원, 히&리병원, 더블유(W)병원, 현대유비스병원, 부평세림병원, 박애병원, 케이에스병원, 순천한국병원, 한 마음병원 등 10곳이다.

공단은 산재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2008년부터 매년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요양과정의 적정성, 의료서비스 향상 노력 및 공공성 등 9개 영역 21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다.

재활치료 중심의 재활인증병원과 급성기치료 중심의 일반병원으로 구분해 평가를 실시한다.

### 김해복음병원 손미나 수간호사 시민 생명 구해

길가에 쓰러진 시민의 생명을 구한 간호사의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인공은 송인의료재단 김해복음병원 손미나 수간호사.

손미나 수간호사는 지난해 11월 9일 차량으로 김해시 삼정동 인근을 지나던 중 길가에 쓰러진 중년 여성을 목격했다.

차를 세우고 여성에게 다가가 확인한 결과 의식은 불분명했지만 맥박과 호흡은 유지되고 있었다. 바로 신고한 후, 겨울철에 민소매에 짧은 하의를 입고 있었던 여성에게 저체온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요를 덮어주고 보온을 유지했다. 경리병원, 좋은강안병원, 히&리병원, 더블유(W)병원, 현대유비스병원, 부평세림병원, 박애병원, 케이에스병원, 순천한국병원, 한 마음병원 등 10곳이다.

공단은 산재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2008년부터 매년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요양과정의 적정성, 의료서비스 향상 노력 및 공공성 등 9개 영역 21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다.

2019년 처음으로 도입했다. 평가결과 우수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년간 종합가산율을 5~10%



손미나 수간호사는 "간호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간호사로 일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전인간호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기자 jslee@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www.RNjob.or.kr ☎ 1522-1755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신 경 림 인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등록번호 : 서울046388

◇대한간호협회 (02) 2260-2511 ◇간 호 사 신 문 (02) 2260-257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독자주소변경 (02) 2260-2571  
koreanurse.or.kr nursenews.co.kr